

초파일을 앞두고 교구의 시급한 모든 일을 내려놓고, 이렇게 본사주 지스님들이 먼저 제안하여 오늘의 절실함으로 정진 입재를 가진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 교구 책임자에 이르기까지 수반되어 온 그간의 수행력과 종단관을 생각해서라도 총무원장의 부덕함이 스님들에게 번거로움만 드리게 되었습니다.

안정된 기반의 조화로움 속에서 불교중흥을 위한 소통과 화합을 이

**루겠노라, 감히 매진한 지도 어느새
2년 여의 시간이 지나고, 이제 총무
원장의 임기는 1년 6개월여의 시간
이 남아 있습니다. 선대의 결사정신
을 잇기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
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. 하여
종단의 책임자로 있는 동안 완성할
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. 재임을 통
해 이루겠다는 것도 부질없는 욕심
입니다. 자성과 쇄신이라는 튼튼한
기반이 조성되고 여법한 승계를 생
각하면 소임의 기간은 아무런 의미**

**가 없습니다. 재임은 전혀 생각지도
않고 있으며, 남은 1년여의 임기마
저도 크게 연연하지 않을 것입니다.**

**50년이라는 통합종단의 시간동안
우리가 무엇이 미흡하고 무엇을 자
성하여 쇄신해야 하는지를 누구보다
잘 알기에, 교구본사 주지스님들께
서는 그동안의 악습이나 폐단을 근
절하고 쇄신해야겠다는 일념을 일선
에서 항상 염두하고 계셨을 것입니
다.**

열흘이 지나 6월 초에 수많은 관심속에서 종단 쇄신안을 공표할 예정에 있습니다. 교구본사의 적극적인 동참과 실천이 무엇보다 종단의 큰 동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. 이미 지나간 과거의 행동과 사고 방식으로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열어 나갈 수 없습니다. 지금 고통의 시간을, 미래를 향한 성장의 아픔으로 삼아 역사적 노고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.